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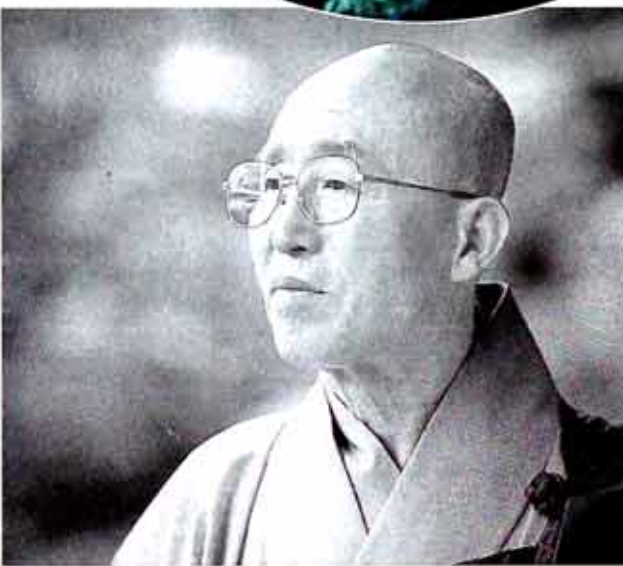
연꽃 소담스런 배움의 도량



운악산 봉선사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 한글대장경 완간이라는 대불사가이 절에서 시작됐다. 창건 당시에 비해 사찰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재가자들 스님이든 늘 공부하는 배움의 도량으로, 수도권 시민을 위한 휴식의 도량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운악산의 일출 월운스님

대강백...한글대장경 37년만에 완역

1948년, 18살 되던 해, 무작정 집을 나와서 절로 간 스님. 1950년에 대강백은 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나 은사 스님을 직접 뵈는 것은 3년 뒤의 일이다. 한자에 갖힌 대장경을 우리말로 옮기려는 은사 스님의 원력을 보고 출가를 결심한 것이다. 강백으로서의 길은 그렇게 시작됐다.

은허 스님의 뒤를 이어 동국역경원장을 맡아 37년만에 한글대장경을 완간하신 월운 스님. 봉선사의 조실로 농업학립의 화인들을 이끌면서 강사를 배움하는 일에도 남다른 정성을 쏟으신다.

안개가 감돌처럼 흐르는 공룡 숲을 헤치며 봉선사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거리에 이런 원시의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비만 오지 않았으면 구름도 파랗게 깔렸을 텐데, 하늘 생각이 들 정도로, 봉선사를 둘러싼 녹음의 바다는 짙푸른 파도를 일으켜세우고 있습니다.

봉선사. 경기 지역의 으뜸 사찰로,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입니다. 고려 광종 27년(967) 법인 국사가 운악사(雲岳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하나 이를 입증할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선 예종 1년(1469) 세조의 비 정화왕후가 세조의 동침(동종)을 돌보기 위해 절을 지은 때를 초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커다란 학교같은 절

창건 당시 89칸이었다는 규모나 명종 6년(1551) 교종의 으뜸 사찰이었다는 화려한 과거는 지금 희미한 옛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잦은 전란으로 부침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6·25 전쟁은 1926년에 지은 삼성각과 보물 제397호인

동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극진한 보살핌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큰법당 뒤 석축의 우아함이 그것입니다. 사실 봉선사의 외양은 조계종의 다른 본사급 사찰에 비해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봉선사를 판단하는 건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봉선사의 진면모는 그런 차례에 있지 않습니다. 봉선사는 하나의 커다란 학교입니다. 유치원, 불교고양대학, 불교대학, 경전공부반으로 이루어진 학교 밖의 학교입니다. 유치원이 미래의 부처를 위한 배움의 공간이라면 나머지는 어른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어른들은 하심을 배우고, 존경을 배우고, 당면 마음의 넉넉함을 배웁니다.

봉선사 도량은 언제나 배움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독경 소리와 강사의 목소리가 절묘한 화음을 이루기도 합니다. 모든 전각이 예경의 공간이자 배움의 땅인 곳이 바로 봉선사입니다.

봉선사는 사람을 기르는 도량입니다. 재가자들 뿐 아니라 스님들도 대부분 학인입니다. 39분의 스님 중 14분의 스님은 농업

학림에서 공부만이 아닙니다. 남 주기 위한 공부인 만큼, 공부만 한다 해서 허물은 아닐 것입니다. 농업학림의 대부분 스님들은 다른 절의 강원에서 강사를 하시면 분별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투철한 분별입니다.

'큰법당' 한글 편역 호시

봉선사를 얘기하면서 '역경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법당의 편역을 한글로 '큰법당'이라고 붙여 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대장경의 조처를 다지신 은허 스님께서 1970년에 대웅전을 복원하면서 불인 이름으로, 한글 편역의 호시입니다. 지금도 조계종 본사급 사찰로는 유일합니다.

봉선사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하루 나들이에도 좋은 절입니다. 국립공공수목원을 뒤물로 삼고 있는 만큼, 하루를 다 바쳐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공 일주문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행여 유원지 같은 분위기가 들까 봐 절 들머리부터 부처님의 땅으로 장엄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아왕 하는 일, 길 한쪽을 공릉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가꾼 산책로로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봉선사는 연꽃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절마당 한 바퀴 휘-돌고선 절 구경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발 사이로 백련, 홍련, 수련이 각기 독립된 연못에서 소담스런 꽃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천천히 연못가를 거닐어 보십시오. 절이 어떻게 우리를 안심(安心)시키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安心의 도량

대지는 지금 초록 일색입니다. 초봄의 꽃길은 수줍음도 없고, 가을의 불타는 화려함도 거리가 멉니다. 맹렬히 푸를 뿐입니다. 너무 푸르려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이맘때 꽃을 피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꽃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당장 봉선사로 떠나십시오.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가)

시멘트 법당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국에선, 한국불교 건축공예에서 시공되는 사찰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 천년대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불교의 시공은 기초부터가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특징

-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조립공정으로 간편하여 시공이 빠릅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서 벗어날수가 있습니다.

시업내

- 고건축사업부: 콘크리트법당, 요사채, 남굴당, 콘크리트성형조각 판매.
- 조각내장사업부: 탁자, 닻등, 16나한, 500나한.
- 무역부: 육불

기초터파기

반대철근 잇기

기초 및 벽석쌓기

성형 배출원기동

기둥 및 횡방 평방공조

포작조립 감관잇기

포작양생과정(공정)

철차 및 이재공조립

보합 및 삼포조립

도리 및 지붕공시

천정 우물받지

서기래 및 2이공공조

문짝 및 굴조공공

단정공시

단정완공

완공식

한국불교건축공예

서울 중랑구 양우2동 563-12세영빌딩3층

대표전화: (02)494-4890-1

전시장 확장이전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